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8호 【루게 제25201호】 주제 105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올해를 주체혁명 위업수행의 일대 도약기로 만들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일심일성의 피성으로 화답하며 70일전투철야진군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영웅적군수로동계급은 당의 국방과학, 군수공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실험반땅크유도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정을



목표를 쏘아 맞히는것처럼 대단히 정확하다고, 장감관통능력과 파괴력이 놀랄만 한데 아무리 특수복합장감을 뒤집어쓰고 기동력과 타격력에 대하여 발전되었다고 자랑질해대는 적땅크, 장갑차들도 우리의 반땅크유도무기앞에서는 실은 호박에 불과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반땅크로켓에는 우리 당의 유격전에 관한 군사전략사상이 절대성되어있고 자신께서 주장하는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반영되어있다고, 경량화가 실현되어 적은 인원이 휴대하고 다니

힘있게 벌려온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고심어린 연구사업끝에 드디어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식 주체무기완성을 알리는 최중시험사격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

유도무기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 중장 조남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창광동지,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군수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시험사격은 휴대용레이자유도반땅크로켓의 비행조종성 및 명중성과 로켓의 집초 및 열압전투부의 위력을 판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개발연구사업을 지도해오시며 자신께서 직접 제시하신 사거리연장문제와 집초전투부의 장감관통능력을 높이고 열압전투부의 위력을 높일데 대한 과업관철을 해당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시뮬건 불꽃기들이 목표들을 향하여 연방 날아갔으며 목표들이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말 놀란 한 사격이라고 하시면서 휴대용레이자유도반땅크로켓으로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이 로켓이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명중성을 보아도 마치 저격수보총으로

므로 적의 표적으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을 기습타격할수 있으며 정밀성과 놀랄만한 위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무기는 나무랄데 없는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주체무기이라고, 이 하나의 주체무기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반땅크 유도무기의 전투기술적제원이 당에서 제시한 목표에 확고히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빨리 다량계열생산에 들어가 전선부대와 해안방어부대들

에 다층으로 배비시켜 유사시에 적방 크, 장갑차사냥전을 본때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한성한 과학자, 기술자, 로 동지께서 이 무기 체계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국

방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 한 군수공업전선의 70일전투의 서막 을 장엄한 포성으로 열어제겼다고,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공장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 학연구부문과 전체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하나의 무기를 개발 하고 생산하여도 세상에 볼도 없는 우리의 식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우리 군인들의 체질에 맞는 주체형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 면서 70일전투기간과 올해 군수공업전선이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을 강렬한 국방력으로 튼튼히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우리 당은 영웅적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투쟁 또 투쟁하며 자위적력 억제력을 포함한 국방력강화사업에서 더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에 참가한 일군들과 국방과학자들, 군수로동계급은 주체적인 군사전법의 요구에 맞는 전투기 술기재들을 개발하도록 종자를 주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며 정력적인 명도로 주체무기를 직접 완성시켜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고스 란히 국방과학진사들에게 돌려주시며 더 큰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군사리혁명정신 기어이 완성해야 할 무겁 과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군수생산과 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국방과학연구, 핵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천 리마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여 70일 군수로동계급의 어깨우 전투의 제일 선두에서 주체혁명의 대보 에 실려있다고, 주체혁명 을 얻어제길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위엄의 영광찬란할 앞길



# 당의 경도를 높이 받들고 총정이 70일전투에서 백두산대국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하자

##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며 총정의 70일전투에서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가 28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당의 전투적요소로 피끓는 심장으로 화합하여 당 제7차 대회를 위한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 군중들의 드높은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명길일성투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평등자 김일성동지기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등자 김일성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완수하자!》, 《2주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당 제7차대회》, 《공동주요판권》, 《총정의 70일전투》를 비롯한 구호판과 글판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과!》주요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박재성 도당위원장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투쟁지구단위합동회의를 봉상한 량강도 지대인 리세

은,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성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환오, 일군들을 대표하여 평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봉철이 경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령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 전진적, 전진민족총동원전, 총력사건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뜻깊은 지난해 전역, 식민과 세력트, 비호를 비롯한 도인의 주요공급부품들에서 생산을 정상시키고 농산, 축산, 수산부품에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부름을 피끓는 심장마디에 받아내고 총정의 7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신적인 분수령으로 빛 날 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여 내치, 엄광의 대회를 빛내어야 한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위대한 김일성투지와 김정일투지를 주체의 영혼인 대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고 오고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과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의 사상과 영토를 먼 앞장에서 구현해나가는 수명길사투리의 전투우가 되게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최혁발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에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도인의 모든 단량물에서 수증산물의 불결을 제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식탄을 충분히 대

주며 세멘트와 주체비료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주시 총학협동농장,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사회주의문화촌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개선을 다그치면서 영농농업정비정책을 철저히 세워 압록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수산발진전에서 획기적인 전향을 가져오고 현대적인 배기양기장치용 건설하며 곳곳에 꾸러진 양어장과 남새시설, 버섯생산기지가 늘어나는 내세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정치사상전지를 억척같이 다지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모든 단량물들의 요새로 꾸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전순춘 도당위원장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기사장 정영은,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정진기 총정규리 남석철, 농업작업반장 리장화,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수, 일군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청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 최광철이 경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당이 당 제7차대회를 빛내는 정치적의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하여 총정의 70일전투를 발기하고 전당, 전군, 전민족을 하나로 결속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며 훌륭한 공헌을 한 핵개발자들과 우주정거장개발자, 최고의 생산성과로 당중앙에 기여를 드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지회 도인의 모든 부문, 모든 단량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연이어 창조하

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수주수발진소와 경원지구단위합동회의를 비롯한 전역과 식탄공업부품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성과부품자 자신들의 투쟁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발군의 정신력을 총력발사하여 전역과 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차비의 썩부리기,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집행함으로써 올해농사에서 풍광을 부르며 경영농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복복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수력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여 전력 생산을 최대한 높이며 함남지구단위합동기업소에서 금과과 박도용을 확고히 앞세우고 농촌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앞밀고서 지어 올해농사에서 풍광을 부르며 수산발진소에서 획기적인 전향을 이룩하고 축산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높일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새로운 가공공장을 새로 등공업공장과로 지방공업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수증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구상을 대표하여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기사장 정영화,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 사모구역 영농협동농장 평의원장 김명길,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철, 일

군들을 대표하여 함흥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철이 경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전투적요소로 피끓는 심장으로 화합하여 당 제7차 대회를 위한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태동수 도당위원장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기사장 정영화,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 사모구역 영농협동농장 평의원장 김명길,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철, 일

군들을 대표하여 함흥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철이 경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전투적요소로 피끓는 심장으로 화합하여 당 제7차 대회를 위한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리성진 도당위원장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당련합기업소 지대인 최성준,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정길일, 청년들을 대표하여 해산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당위원회의 비서 오정덕이 경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불을 당기듯 역세기 주어져도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투쟁의 기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경의들이 재연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칼비료생산은 혁명적 새길 사상의 강지대로 준비시킴대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해산청년학생을 비롯한 도인의 광업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하여 힘있게 투쟁하며 생산선전투를 힘있게 벌여 경제강국건설에 더 많은 홍나우를 보내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이 실천을 통하여 생활력이 확충

된 태동산식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삼지연군, 백암군을 비롯한 도인의 대규모농사지대에 초한 감자대풍을 만들어내게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유인민, 애국원과 압록원, 립제봉농영화관을 강조하며 입대우고 해산-삼지연은해결건설을 힘있게 다그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해산청년학생을 비롯한 도인의 지방생산선전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백두산애 첫 등대에서부터 로동당 단애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돌지 않는 열정을 안고 백두산영웅전3호발전소건설장소를 비롯한 이렇고 힘은 전구미디에서 전적의 등과를 열이제까지 청년영웅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군들이 공중에서 깊이 들어가 대국의 심장에 불을 타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불을 당기듯 역세기 주어져도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투쟁의 기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경의들이 재연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칼비료생산은 혁명적 새길 사상의 강지대로 준비시킴대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해산청년학생을 비롯한 도인의 광업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성과를 이룩하여 힘있게 투쟁하며 생산선전투를 힘있게 벌여 경제강국건설에 더 많은 홍나우를 보내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이 실천을 통하여 생활력이 확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역사적인 남호두회의 8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역사적인 남호두회의 8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26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되었다.

리영철 사회과학원 원장, 판재부윤 일출, 과학, 교육, 출판부윤, 혁명사적부윤, 당일군중앙서기부윤,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남호두회의가 우리 혁명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지위와 함의의 혁명적의의를 결정적 용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매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기치를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러는데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세심한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부교수 김인숙은 《남호두회의는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혁명투쟁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호두회의는 환파리로 말하면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혁명투쟁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수 있다.》

토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 26일 남호두에서

소집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운영간부회의의 성격과 의미가 거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가 1930년대 전반기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선포하고 조선혁명가들이 확고히 전진하여야 할 주체적의의를 다시금 명백히 천명한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말하였다.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남호두회의는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비정표를 마련하고 주체의 한걸음 따라 확고히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

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

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

잊지 못할 날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

주제 63(1974)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전국적인 강병이시로종종 경회를 친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 몸 전현실을 찾으시었다.

이날 전현실에서 제 몸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발발에서 달상한 성과와 부총정들에 대해 하나하나 캐물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옥발발을 밟아보았는데 대은 밤은 구수하지만 저녁에 지은 옥발발을 아침해 먹어보

고 아침해 지은 옥발발을 낮에 먹어보니 맛없어서 좋지 않더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만든 옥발이 되고 보면 불이 쫓겨나고 밤을 쫓으면 무거운 흰발이 가미발에 머물고 옥발이 우리 머리 위에 배배함으로 많이 찰지 않았다고 하시었다.

수심처처에 걸친 전민족 군중도 미처 생각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거름거름 세세하게 보아주시고도 강병이로 새로운 쌀을 만들었다는 대은 밤을 밟고주시고는 그 쌀이 흰쌀임을 아침해 먹어보

한 로동자가 받아온 정치적생령

속도전의 기상때머 70일전투가 마감되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었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어느 한 현장에서는 뜻밖의 정황이 발생하였다. 위급한 순간 당원들이 위험을 맞받아 뛰어올랐는데 그속에는 그 로동자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인민당 당원들이 그 순간에 당원들이 위험을 맞받아 뛰어올랐는데 그속에는 그 로동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공에서 귀중한 정치적생령을 지니고있어 하는 한 평범한 로동자의 간절한 소원을, 그처럼 절절히 소망하면서 누구에

# 조선혁명의 분수령을 이룬 역사적인 남호두회의

속 높이 주어져신 주체의 기치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은 물론 그 이후 여러 단련의 혁명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주체적의의를 온몸으로 전진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끈기를 인내하고 꿰찬는 생명으로 변형되어 불어오르나갈수 있는 한 원동력이 되었다.

남호두회의는 주제 25(1936)년 2월 27일부터 여러날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때 회의장에 세워졌던 붉은 기는 앞으로 실현한 혁명의 진리용 오늘날도 우리 천만인민의 가슴마디에 뜨겁게 새겨져있었다.

붉은기는 총애에 의해서만 굴복할 수 없을수 있고 주체의 한걸음 따라 전진하는 혁명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휘날릴수 있다.

흔히들 보면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간악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폭압과 탄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책동을 짓부서버리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에 이르게 하는것이 우리의 혁명발전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어 조선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가막힌 사실이바로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서 조선을 살리었다. 조선은 싸우고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나있을것을 믿고있다. 조선은 언제라도 가장 절박한 리유로 되고있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국제당이 존재하고 1국1당제 원칙이 절대적인것으로 되어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정당하게 비합당적이지 않은가. 합법적이기 비합당적이기,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도 가만히 편할수 없는 복잡한 심각한 난문제였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서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하기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국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의의, 단련한 힘의 훈련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결론을 내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정정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총합하고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운영간부회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요를 위한 조선인민들의 자강의 임무》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보고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0년대 전반기 무장투쟁 동맹을 총화하고 조선혁명가들을 위한 전향적과업과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의 백두산지역으로 전진시키며 무장투쟁을 점차 국내로 확대할데 대한 문제,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집권시정에서 주체적 신시대 대한 문제, 공장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에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의 혁명가들이며 조선의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뚜렷한 자주적의의가 백발백중이었다.

지금도 남호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처럼 그 귀중한 가르침을 받든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의 혁명가들이라. 오늘 우리

# 주제104(2015)년 수산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 진행

주제104(2015)년 수산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이 서해지구와 동해지구로 나뉘어 24일과 26일 무역수산사업소와 신포현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었다.

수산부문 일군들과 무역수산사업소, 신포현양수산련합기업소의 증업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수산물을 3대축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수산사업소들을 찾으시어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한 과업과 담도들을 완히 밝혀주시어 정적적으로 평등화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당의 뜻을 받들고 도수산관리국출사이, 수산사업소출사이의 사회주의 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령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투쟁에서 펼쳐나신 우리 천만인민의 마음속에서 더욱 힘차게 휘날렸었다.

연사기자 전광남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쟁총화 발표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총상장과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수용기가 무역수산사업소, 김해수산사업소에 수여되었다.

이이 토론들은 수명의 유순한발전, 당정책을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라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당중앙당사용위전,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사복무기쁨의 분포기를 머리배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온 나라에 사회주의마다탕기가 차넘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주제 105(2016)년 수산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이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은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전제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높이 받들고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는 격조있는 시기에 우리는 역사적인 남호두회의 80돐을 맞이하고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천만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든 반향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 조국해방의 대사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양상기를 맞게 되었다.》 그의 의지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다.》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위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을 국내외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내는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결집을 위한 전진행진준비기 급격히 추진되게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호두회의는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부교수 김정환이 토론하였다.

그는 남호두회의에서 범민족적인 통일선선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며 주체적으로 확립되는 무장투쟁과 결부하여 반일민족통일선선운동을 전국적, 전민족적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명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명도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광범히 묶어주어 우리 나라 통일선선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는 80년이 되는 오늘에도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과공명학교 부장좌장 부교수 리정환은 《남호두회의는 전국적투쟁에서 당중앙의 조직사상적지도를 문명히 총상하기





#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자비한 섬멸전으로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다

## 쌀이고쌀인 증오와 분노를 총폭발시키라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조선 민족이 후손만대의 복락을 위하여 할 이 땅이 외세의 판가름을 하는 처절한 대결장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에게 또다시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새로 꾸미낸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핵전쟁준비》, 《우리 삶과 운명의 전부를 잇기》,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미제는 《합수작전》의 개시로 전 조선반도를 재한 불타다독에 밀어넣고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세계붕괴》와 《북극점의 야망》을 거기에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가소롭다기보다 너무도 무엄하여 이르렀다기보다 완악하다. 우리가 해야 할 무모한 망정이다. 우리가 하여금 인내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참혹한 도전을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할 총폭발시키라.

바로 그 작전을 위해 지금 남조선으로서는 미제침략군의 폭군, 핵군, 핵해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부대와 《핵전쟁준비》를 총동원하는 침략부대가 풀잎같이 쏟아져 들어와 전개되고있다. 미제의 3대전략 핵타격부대에 속하는 핵동맹국인 《노스캐롤라이나》와 《E-2A》 스텔스전투기까지도 남조선에 기여출했다.

미제는 우리의 머리위에 끝끝내 전쟁의 불구름을 불어넣어 하고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이미 온 세상에 발표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은 미제의 로골적인 자주침략행위와 침략적도전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억척불변의 선언이고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퍼져나오는 증오와 분노의 화염이다.

세계의 진정한 눈길은 조선반도에 집중되고있다.

우리는 미제를 극도로 증오한다. 역사에는 우리 조선이 미국에 미를 인종이라도 해를 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이 무 배아될 수 없는 재난을 불러온 죄악의 발자취가 뚜렷이 새겨져있다.

우리 민족은 분열된 강토에서 불로 갈라져 살고있다. 해방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새 조선의 건국열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에 미국은 《해방지》의 말을 쓰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두루모자르듯 갈라놓았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증오한다.

그때 우리 나라의 힘이 멸망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분열되어야 할 근원으로 되었던 말인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민족수난의 쓰러진 고봉을 수습할수만 권이 하는 《의》로 되었던 말인가.

남조선도 유당 조선인민, 조선인민이 주인으로 되어야 할 땅이며 조선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있다. 미국의 각종 군함과 전투기들이 제 집 드나들듯 하고 미제침략군 병사들이 남조선내부를 봉유하고 삼대하여 집집마다서 재물을 털어내도 향연 한마디 특특 못 하는 것이 피괴정권

이다. 미제는 폭주각시에 불과한 피괴정권을 조종하여 총폭발을 부추기고있다.

미제야말로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고 대결로 부추기는 민족의 원수, 통일 원수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의 군화발이 가뭇났던 원한과 신과 괴로 얼룩진 수난의 흔은 《학예》와 《자신》, 《평등》과 《자유》, 《평화》와 《인권을 복이》, 《우도복 부르는》 미국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날도 민중에게 폭로하고있다.

미제는 침략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총폭발이 사람의 괴로움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수 없는 무망가진 승냥이다.

우리는 미제에 대해 최대의 분노를 품는다.

우리 인민, 민족이 대대손손 누리는 태양복을 빼앗아내려고 악착하게 달려들고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살을 지겨주고 골짜기주어 운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눈부신 태양이 없는 우리 인민의 모든 존재가치에 대하여,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최고수부부는 곧 우리 땅이고 우리 조국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이고 힘이다.

우리 인민은 전지구의 불발탄을 볼 때마다, 머리속에 떠올릴 때마다 용암마냥 분노로 심장을 떨릴 뿐이다. 준엄한 전쟁시기 우리 최고사령부들 노리고 슬한 폭탄을 줄줄이 뿌려대고 기동사격을 하여 버린 일들로 인제나 가슴 불태우는 것이 우리의 천만군민이다.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불로 가르고 남조선을 가르고앉아 온갖 악행을 다 일삼아온 미제가 오늘날은 또다시 우리 운명의 대양을 겨냥한 특대형 폭탄을 감행해보려고 어리석게 달려들고있다.

이를 과연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심장은 추호의 용서와 자비도 없어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치고있다.

우리의 심장속에는 증오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진실한 감정을 지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흠모하며 끝까지 따르는 그 사상정신적감정은 남들이 못 가진 또 하나의 무기, 핵무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그로써 열렬하고 뜨겁게 그 사랑을 알아가려는 원수들에게 대한 치욕은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는 것이다. 분열의 고통과 핵위협공갈, 제제압박속에서 이룩한 우리의 모든 것이 소중하기에 그를 빼앗으려는 미제에 대한 분노가 백배더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증오와 분노는 70여년 동안 쌓이고 쌓였다. 미제는 미적대가를 치고있다.

우리 혁명부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수단들에 진앙아진것은 우리의 증오와 분노이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증오와 분노는 천하와 대륙의 무리들을 짓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원수들이 음해하기만 하면 죽음이 상도 못하는 위대한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악의 본거지들을 불타버릴 때까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거기에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김종권기자(관치리원)가 2기공직장 직장장 신승래는 우주에 닿고있는 선군조선의 위력에 겁먹은 미국놈들이 무얼

## 조선은 결심하면 한 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평마 투를 향하여 모두들 떨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온비백산하여 탄압막막을 하고있다.

핵동맹국인 《노스캐롤라이나》로써 비롯하여 슬한 미제침략군 특수작전부대를 연속 남조선에 투입하면서 지랄발방하고있다. 실현될수 없는 그 무슨 《세계붕괴》를 떠들어 붙여놓고 있다.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서 사상적으로 왜곡시키려는 무수한 짓거리들이 어저것 하나 실현될수 없게 되자 미국은 군사경제의 본성 그대로 폭력행사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다.

수습방안할수 없는 조성원천세와 판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부는 중대성명을 발표하여 노호한 우리 천만군민의 천배 배복의지를 담담이 이 세상이 상상할수 없는 무자비한 보복전으로 남강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단번에 처부살멸적의 기상을 내외에 선포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결심, 조선의 결심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위태로워진것을 면히 보면서 가만히 앉았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군대의 인민은 민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는 것이 선군조선의 본태이다.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전에서 오직 패배의 고배만을 맛본 미국이 변천된 현실을 의면하며 무지스럼히 힘의 정복에 달려드는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힘의 우세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이 미국에 준 교훈이다. 미국은 3일이 아니라 3년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도 역사상 패배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고있다.

우리 인민앞에 미제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걸려버린 항복서는 과연 얼마안가.

수십년간을 믿고 무모하게 달려들던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맞설 때마다 천배 배복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총대는 미제의 위협에 대결속에서, 현강들의 강권과 전철이 판무하는 엄혹한 현실속에서 때때로 대강했다. 우리에게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방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패수 있는 세계가 거저본적이 없는 강위력을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인디언학자 쿠마르 곱다는 《미국을 괴롭히는 두 력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패전한 력사적사실과 조선이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놓고 대단히 괴로와하고있다. 미국은 이 괴로움과 고통을 덜기 위하여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승전》으로, 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묘사하고있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 더 큰 손해를 보게된다. 제2의 조선전쟁, 그것은

핵수십년동안이나 분노에서 죽어났을 모르고 살아온 미국력사에 증지 부가 찍히는 파멸적인 전쟁으로 될 것이다. 전쟁으로 삼고 전쟁없는 살수 없는 전쟁국가, 력사상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벌여온 미국력에 복수의 죽음이 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불어넣는 침략전쟁에서 희생을 느끼는 양기분고장의 정예들에게 폭탄맛을 알게 하는 첫 나라는 조선이 될 것이다.

언제인가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 세 미국의 심장부에 수습수단의 목숨을 불어넣을 무서운 유인한 적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반도의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제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할만 알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지는 아직 체할지 못하였다.

우리 최첨단공격수단들의 소멸원인에 들어있는 미국이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인들이 일어난 조차 재이하는 지난 조선전쟁은 그들이 재재자로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 《행운》은 다시는 차려지지 않을 것이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지구상에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리라. 이것이 제2의 조선전쟁을 불어오는 미제에게 내린 우리 혁명부대의 최후의 명령이다.

이비 천명하바와 같이 우리 천만군민은 그 누구도 우리의 존엄을 최고수부부를 발발만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랑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정벌해버릴 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 조선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고 경고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정벌해버릴것이다》를 23일과 2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올해 조선의 첫 수습수단시험과 위성발사의 완전성공을 전경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3일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의하면 이 시각부터 조선의 모든 전략 및 전술수단들은 적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들 사안에 철저하게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라고 한다.

성명은 1차라적대상은 동북대륙의 모악소굴인 평안도이며 2차라적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기지들과 미국본토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이다. 미제침략군과 핵동맹국인 미국놈들이 다 있다고 성명을 밝혔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최고사령부는 23일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적조치에 강구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적들의 특수작전 준비와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는 중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의 동향에 대해 《우리 최고수부부를 겨냥한 《합수작전》을 통하여 《세계붕괴》를 실현해보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핵전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능케라도 사리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다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의 비아 노보스페르

## 모든 악의 본거지들을 송두리채 재가루로

조선인민군 군관 황원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심장은 지금 침략의 개부리들을 축약하며 떨떨의 지리로 새겨져 놓여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악랄한 작전계획까지 짜여져 있고있고있는 원수들의 히스대로 격렬하게 이세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너를 빼앗아 갔다. 너두려, 감히 더러운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어찌 보려는 그저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들을 해대는 미친개구리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피가 뻗어 끓는다.

미친개구리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보라. 우리의 성원은 용서를 모른다. 우리의 핵탄두는 첫 순간에 모든것을 날려버리고 아예 빼도 주저치 못하게 침략의 무리들을 짓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원수들이 음해하기만 하면 죽음이 상도 못하는 위대한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악의 본거지들을 불타버릴 때까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거기에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김종권기자(관치리원)가 2기공직장 직장장 신승래는 우주에 닿고있는 선군조선의 위력에 겁먹은 미국놈들이 무얼

피가 뻗어 끓는다.

우리의 심장마다에서 솟구치는 천배 배복의 열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국놈들과 그 쫓아다니는 미제놈들이 이 행성에 떠는 것이다.

평양정보기술국 초급공무원 맹원희 위원은 《조선의 총대맛이 어떠한지, 우리 로동계급의 주먹맛이 얼마나 뜨겁고 뜨겁고 열매는 하수장까지 가는 열매에 대한 뜻을 보일 때는 드디어 왔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놀아대는 미국놈들과 괴뢰적력대들의 정수리에 얽힌 철수물 내리고 지구상에서 말끔히 쓸어버리자, 이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의 심장마다에서 솟구치는 천배 배복의 열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국놈들과 그 쫓아다니는 미제놈들이 이 행성에 떠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어찌보겠다는 악의 제국 미국과 민족의 모욕인 남조선피괴들이 조공이라도 울려퍼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다. 남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묘사하고있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 더 큰 손해를 보게된다. 제2의 조선전쟁, 그것은

한데로루려 오는 공포와 초조감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수들의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에 대한 태양을 용이하여 성세, 방패를 이루고있으며 그 전열에 50만 청년전원들이 군림해 서있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어찌보겠다는 악의 제국 미국과 민족의 모욕인 남조선피괴들이 조공이라도 울려퍼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다. 남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묘사하고있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 더 큰 손해를 보게된다. 제2의 조선전쟁, 그것은

본사기자

## 아메리카제국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는다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다 건너 양키의 무리들이 조선반도로 뛰어올랐다. 무수한 침략정예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특수작전부대들이 파룬은 발톱을 드러내며 이 땅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천만군민의 배설은 든든하다. 확인한대 《합수작전》이다. 《핵전쟁준비》이다. 《우리의 정의로 운 위업을 창조》, 《미제에 대한 기동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제적작전이다. 이의 실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